

겸허한 자세로 생명의 길을 걷다



정철현 교수가 이끄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꾸준한 연구, 앞선 교육 시스템으로 세계적 수준의 심장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흉부외과 정철현 교수는 기적을 기대하며 수술실로 향한다. 정 교수에게 기적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끝에 찾아올 뜻밖의 결과를 의미한다. 의학적 지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장으로서도 마찬가지다. 6년에 걸친 임기 내내 정 교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8개 센터의 구성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살리며 환자를 위한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써온 것이다. 정 교수의 이런 자세는 “선배나 리더가 욕심을 버려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삶의 철학에서 비롯한다.

동경에서 자부심이 된

흉부외과 의사의 길

정철현 교수는 의과대학 입학 당시부터 외과계를 염두에 두었고, 수련을 거듭할수록 흉부외과에 매료되었다. 선배 흉부외과 의사가 맨손으로 심장을 마사지한 끝에 환자의 숨을 되찾아주었던 장면이나, 흉부외과 의사들의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리?”라는 자부심 섞인 농담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30년 사이 정 교수는 청년 시절의 동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다.

“흉부외과 의사의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심장 수술은 평균 4~5시간이 걸리는 대 수술이니 술기에 앞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수술 계획을 잘 세우려면 심장과 인체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라는 자부심, 회생 불가능해 보였던 환자를 살릴 때의 환희는 말할 수 없이 큼니다.”

환희의 이면에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든 고난과 좌절도 많았다. 물 마실 시간조차 없이 수술해야 했던 날들이나, 응급 상황으로 인해 밤낮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생활은 차라리 나았다.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환자를 삶 쪽으로 옮겨 놓지 못한 실망과 낙담을 견디는 것이 몇 배 더 힘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삶과 죽음의 순간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도 놓친 환자도 있고, 실낱같은 희망을 잡고 수술한 끝에 살아난 환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 지식만

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환자의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대할 수 없던 결과, 즉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신속하고 정밀한 수술을 위한 심장 연구의 길

‘기적’을 만드는 또 다른 동력은 심장에 대한 연구다.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으로, 이곳이 막힐 경우 심장에 피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수술에 앞서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스텐트 시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곳곳이 막혀 있을 경우 대체 혈관을 연결해 혈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고려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시간에 대한 문제다.

“온몸에 피를 보내는 심장이 오래 멈춰 있거나 움직임이 둔화되면 다른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뇌는 5분만 피를 공급받지 못해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심장수술 시, 최대한 빠르고 정밀하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 혈관을 확보하는 일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시에는 인조 혈관을 쓸 수 없는 탓에 내흉동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복재정맥 등을 주변 조직으로부터 분리해 도관으로 사용해왔다. 정 교수는 현재 어떤 혈관이 가장 우수하고 오래가는지와 함께, 하나의 도관을 여러 곳에 연결했을 때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증상 발현 후 치료하던 것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식으로 치료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자를 설득하려면 수술 성적이 완벽에 가까워야 합니다. 미리 수술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심장병원을 이끄는 보람

2017년 정철현 교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1989년 6월 심장센터로 시작해 2009년 심장병원으로 승격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의 3대 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2년씩 세 번을 연임하는 동안 느꼈을 무게감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부터 앞세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의 성과는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2년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심장 분야 35위를, 심장 수술 분야 52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심장이식수술은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정철현 교수.

국내 최다인 800례 이상을 시행했고,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은 아시아 최초 1,000례를 달성한 동시에 최근 5년간 성공률 99%를 기록했다. 관상동맥중재술도 매년 2,500건 이상을 시행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 모든 성취의 배경으로 정 교수는 ‘시너지’를 꼽는다. 질 환 및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 내과의 뛰어난 연구와 외과의 선도적인 수술 역량을 아울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너지는 시술과 수술의 경계를 넘어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로봇수술은 물론 가슴을 여는 수술 전반에 걸친 최소침습법 적용 노력, 3D 프린팅 기법 도입을 통한 환자 만족도 상승 등이다.

정 교수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덕분에 중증 심장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심장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며 병원 경영진에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역량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정 교수는 “환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윤리적인 의사로 남고 싶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

글 최주연